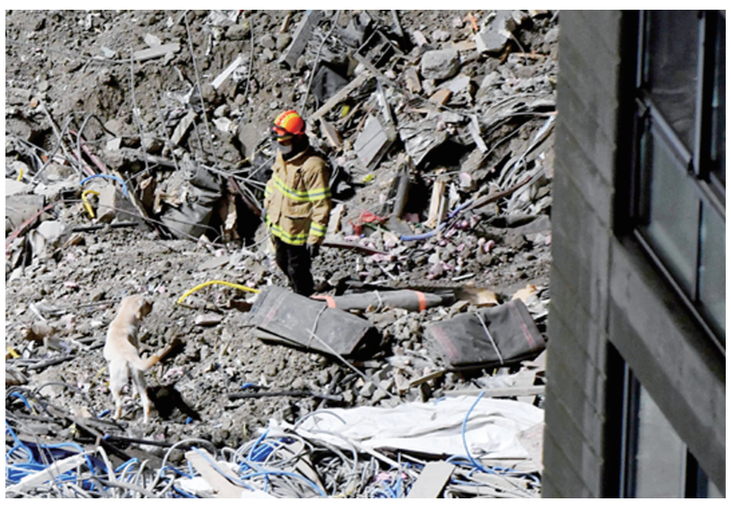
아파트 붕괴 피해가족 '100일 맞는 참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그 누구도 '안전 공약' 내걸지 않아"
"피해 상가와 입주예정자 등 풀어야 할 숙제 아직도 산적"



"사고 이후 곧 1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을 맞았는데도 지역의 예비후보 그 누구도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피해자 가족협의회 안정호(45) 대표는 10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참사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가 된 듯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안전한 사회의 완성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 등으로 201동이 무너져 내린 이후 현재까지 피해 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다.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2월 27일 이후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상생협의체를 꾸리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도 있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구조가 진행되던 당시 정치인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과 약속들은 언제부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지역 아파트의 건축 층수 제한 해제가 논의되는 등 개발위주 공약들이 잇따르면서 기대는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변했다.

안 대표는 "사고 현장 수습 방안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절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광주 개발'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개발을 주장해야 맞는 순서가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지자체와 현산이 나서 사고 현장 수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길 희망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인근 주상복합 입주 상가들의 피해 보상 문제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대책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는 "건물을 향한 대책 마련이 사고수습의 전부가 아니다"며 "현장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사고수습 대책 마련에 대해 아파하고 고민하고 싶다"며 "모두가 모여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 3주간 열병을 앓았다는 그는 '현장에 두고 온 빚'을 언급하며 "산 사람들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장례식 이후 많은 가족들이 지쳐 앓았었다"며 "지금은 가족들 대부분이 마음을 추스린 듯 하지만 우리의 일이 해결됐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된 분이 마지막으로 구조된 1월 29일을 '만남의 날'로 정하고, 매년 가족들끼리 기리기로 했다"며 "가족들은 현장을 떠났지만 대책 마련이라는 빚을 남겨두고 왔고, 수습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노력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기준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직접 과실책임이 드러난 공사 관계자 15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했다. 이 중 감리와 현장소장 등 7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산은 붕괴 사고 이후 전담팀을 꾸려 현장 주변 피해 상가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13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주상복합 입주 41개 상가가 현산 측의 보상절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 기자

오늘부터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오는 1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가정 폭력·아동학대에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주의·위기·심각 체계

서울 경찰이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위험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주의', '위기', '심각' 으로 범죄 위험 수준을 분류해 대응하는 체계로, 지난해 12월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해당 체계가 일선 현장에 안착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중대 범죄로 비화하는 특성이 있는 '위험도 점증 범죄'에도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 관리자급이 위험 단계별로 현장에 개입한다. 주의 단계는 계·팀장, 위기 단계는 과장, 심각 단계는 경찰서장이 나선다.

사건 발생 다음날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초동조치 및 수사의 적절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모델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찰은 "재발 우려 가정 등급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가정폭력의 업무 특성과 학대 피해 아동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아동학대의 업무 특성을 각 단계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에선 구속영장 신청 시 임시조치 5·7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함께 신청한다.

가해자 석방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실행한다.

피해자 안전을 위협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우려가 있을 시엔 영장과 임시조치 5·7호를 다시 신청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도 점증 범죄 대응 시 조기경보시스템을 충실히 가동해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지난해 119 신고 비응급 출동 168% 늘어

"택시가 안잡혀서" 등 개인적인 용도 구급 출동 요구

개인적인 용도로 구급 출동을 요구하는 신고가 잇따르며 경기지역 소방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구급 출동 건수는 2020년 63만6133건에서 2021년 74만2871건으로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송 건수는 2020년 36만5919건에서 2021년 40만5839건으로 10.9% 늘었다. 이 가운데 응급 이송은 36만2671건에서 39만7115건으로 9.5% 증가한 반면 외래방문, 단순주취자 등 비응급 이송은 3248건에서 8724건으로 무려 168.5%나 폭증했다.

이와 함께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이 주된 요인인 미이송 건수(사망 추정 포함) 역시 2020년 27만214건에서 2021년 33만7032건으로 24.7% 늘었다.

119에 전화해 개인적인 용도로 구급 출동을 요구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 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니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단 것이다.

앞서 지난 2월1일 새벽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1시간째 잡히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원이 출동,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택시를 잡아준 뒤 귀소해야 했다.

지난 1월13일 새벽에는 무좀이 있는데 양말 실밥에 발이 막힌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살펴본 결과 별다른 외상없이 발에 검정 실밥이 묻은 상태에 불과했지만,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해있던 신고자의 요구대로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비응급 신고로 자칫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기승 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상황인데도 신속 대처를 못 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선옥 기자

나주경찰, 치안성과향상 보고회 개최

나주경찰서는 지난 8일 영산마루에서 각 계팀장이 참석, 과장, 파출소장은 화상회의로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한 치안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실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 읍내지구대는 최근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많은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다.

광양=심종섭 기자

함평경찰, 마을 CCTV 신규 설치현장 방문

함평경찰서(서장이용관)은 CCTV 확충의 모범을 보인 함평군 나산면 원이문 마을을 방문하여,마을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자위방범 CCTV' 설치를 가장 먼저 진행한주민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함평=김광춘 기자

순천경찰,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향상 보고회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7일 22년 1분기 교통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실시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담양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작년 8월부터 운영 중인 119생활안전순찰대가 군민에게 생활안전진단 등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남부소방, 중요 목조문화재 소방특별조사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 향교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소방특별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